

## 표정으로 알 수 있는 말의 마음

조 준 행\*

현재 한국에는 말의 사육두수가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내년 또한 가을에 있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조직위원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국제마술연맹의 협조아래 막대한 경비를 들여 세계적 규모의 승마경기장을 과천에 만들었으며 또한 말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진료소를 크게 건축하여 여러 종류의 특수기계를 장만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대형 X선기나 최신 마취기를 사용할 직원들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경기에서도 승마대회에 일단 등록된 말이 질병으로 인하여 대회에 출전할 수가 없을 때는 그곳 책임자의 사유서와 아울러 개업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도록 대한승마협회 수의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재 이를 실행하고 있음은 승마에 관계하는 수의사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좋은 말이 많이 늘고 또 승마경기장이 지방 각 도시에 점차 파급되면 앞으로 서울은 물론 지방의 개업수의사도 말에 관한 질문을 언제 어디서 받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말에 관한 상식이외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해 보았다.

모든 동물은 인간보다 단순하고 순진하기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

\*청운동물병원(대한승마협회이사)

여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그럼 수의사로서 우리는 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말은 주인을 닮는다고 한다.

말 본래의 성질은 사람에게 잘 적응하는 동물 중의 하나이다.

말은 결코 주인에게 반항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기질이 강한 반항적인 말을 볼 수 있는 것은 대개가 말을 다루는 사람이나 말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과격해서 말을 천대하거나 혹은 난폭하게 다루어서 그 말이 사람에게 대해 공포심을 갖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본래 순한 성질의 말이 반항하기 시작하면, 이 비뚤어진 성격을 교정하는데는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말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말은 그 사람의 말뜻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 말에 포함된 의미를 느낄 수 있어서 이야기는 곧잘 전달된다.

이와 같이 말의 본성은 이 말을 돌봐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상식으로 보면 말을 다루는 사람은 이 말이 고집통인가 착한가를 즉시 알아낼 수 있다.

처음으로 낯설은 말에 가까이 갈 때는 사랑의 표시로써 가장 부드러운 음성과 그 말이 좋아하고 있는 홍당무나 푸른 풀을 준다면 그 말은 마

음놓고 곧 사귄 수가 있다.

말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 감각기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고 또 섬세하여 외부의 조그마한 자극에도 곧 반응한다. 이는 마치 한참 가슴부푼 16세 소녀의 감정이나, 미세한 바람에도 소리를 낸다는 음질 좋은 바이올린에 비교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직 보지 못했던 물체나 낯선 음향 혹은 광선이 갑자기 나타나면 말은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하는 동작을 신속하게 한다.

한 번 이상한 물체에 놀라면 말은 언제까지나 그 물체를 기억하여 두었다가 그때 당한 고통을 상기하여 다시 놀란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보지 못했던 물건이나 소리, 음향은 주의깊게 차근차근 몇 번이고 가깝게 하여 말이 이러한 물체나 소리 혹은 음향을 익숙하게 하여 말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초적인 작업은 말이 장애물을 넘게 되거나 야외기승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 말의 표정에 주의할 것.

말은 다른 동물에 비교해서 대단히 신경조작이 발달한 동물로서 그들이 나타내는 표정을 알아두지 않는다면 말을 잘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말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태도로 그들의 감정을 알아내어야 한다.

조심스럽게 말의 표정을 관찰하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를, 또는 왜 화를 내고있나 등의 감정을 알 수가 있다.

####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옛말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이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가장 잘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성질이 온순한 말의 눈은 귀엽게 반짝이며 침착하고 깨끗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그 눈동자도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잘 안다는 표시로 가름한 눈매를 만든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느낀다면 눈매에 독기를 넣어 무섭게 삼각형으로 뜨고 노려본다.

피곤하거나 어딘가 아픈 데가 있을 때는 사람이 가까이 가도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거나, 멍한 광택이 없는 눈매를 하는데 더욱 병이 깊어 가면 한 곳만 시종 응시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

또 눈을 바쁘게 움직이고 흰자위를 많이 보일 때는 몹시 불안한 상태의 표시이다. 이런 때는 귀의 움직임과 같이 그 말의 경계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음 콧소리를 내고 날카로운 눈짓을 하는 것은 한층 더 불안이 증가된 표시이다. 말은 불안감이 높아지면 승마하고 있어도 앞발로 땅을 긁거나 자기 마음대로 일어서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미친듯이 뛰어 나가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말의 눈은 말의 감정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가깝게 가거나 승마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의 눈표정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이 사람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정을 표시할 때는 눈꺼풀을 내리고 머리를 사람 몸에 부벼대는 동작을 한다.

이런 말의 동작을 받을 때, 사람은 말의 귀여움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동작은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친밀함을 표시하는 동작과 같다. 사람들은 이럴때 말이 좋아하는 홍당무를 주거나 손으로 콧등이나 목 혹은 어깨를 쓰다듬어 준다.

#### 말은 왜 큰 귀를 가졌나?

아직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신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근육의 기능을 오래전에 잃어버려서 지금은 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말에서는 귀를 움직이는 상·중·하 이근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다. 대나무를 비스듬히 자른 것 같은 2개의 귀는 실사이없이 소리나는 방향과 주의

할 곳에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짐작컨대 야생 시대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청각이 유난히 발달한 때문이다.

갑자기 이상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면 그 쪽으로 양쪽 귀를 돌리고, 더우기 그 소리가 위험을 알리는 것 같을 때는 머리카락을 울려서 언제든지 뛰어도망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말은 쉬지 않고 귀를 전후좌우로 움직인다.

본시 말이라는 동물은 선천적으로 남을 공격하지 않으며 또한 공격할 무기도 갖지않은 가장 평화적인 동물의 하나이다.

소에는 뿔이 있고 산돼지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말의 유일한 무기는 위험을 빨리 알아내고 빠른 발을 이용하여 위험한 곳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다.

이와같이 말의 빠른 움직임을 이용한 경기가 경주마 경기이다.

그러나 이렇게 순한 말도 위험이 다급할 때는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빠른 발길질을 하며 위험물에게 반격을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공격자세를 잡을 때는 곧 두 귀를 등쪽으로 돌리고 눈을 부릅뜬다.

사람이 말에게 접근하였을 때 두 귀를 뒤로 누이는 말을 보는데 이 두 귀의 표정은 자기에게 가깝게 가는 사람을 경계 혹은 적대시하는 표정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표정을 나타내는 말들은 거의 성질이 급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거나 아무일 아닌것으로도 큰소리로 야단치거나 막대기로 때리거나 구두발길질을 한다거나 또는 승마중에 자갈을 무리하게 잡아 당기든지 하여 말을 천대한 결과 후천적으로 사람을 보면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질이 나빠진 말은 사람만 보면 양귀를 뒤로 누고 상대방을 노려보며 언제든지 물거나 찰 수 있는 표정을 짓는다.

#### 귀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말의 마음

말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공격

하는 것 같은 표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목장에 가서 말을 보거나 혹은 TV나 영화에서 방목되어 있는 망아지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 본다면, 처음보는 사람이라도 천진한 망아지들은 낮가지지 않고 가깝게 다가와서 자기 입을 목책 밖으로 내밀고 마치 먹이라도 달라는 혹은 머리라도 쓰다듬어 달라는 표정을 한다. 이때 누구든지 이 어린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악인이라도 단번에 말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후 이 망아지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오게 된다.

차차 세월이 지나서 어린 망아지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는 사이 환경도 바뀌고 돌보는 사람도 달라지게 되는데 어린말 주위의 사람이 과격하거나 성질이 급할 때, 말을 천대하게 된다면 그 말의 성질도 변하여 공격적으로 된다.

이것은 어린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교육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을 좋게도 나쁘게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즉 어느 승마구락부에 이런 말이 몇 두 있다면 이 구락부 안에는 몹시 말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도 좋다.

만일 사람을 볼 때 귀를 뒤로 누이는 말이 있다면 이 말에는 더욱 더 사랑을 표시하여 그 버릇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말을 도와주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버릇없는 말에게 가깝게 갈 때에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 이름을 부르며 조금씩 가깝게 가거나 언제나 그 말이 좋아하고 있는 푸른 풀이나 홍당무를 주고 나서 몸손질하고 안장을 놓고 하기를 반복하여 사람이 말을 해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말의 뇌리속 깊이 심어 주어야 한다.

사자나 호랑이도 서커스에선 고양이와 같이 길 들여져서 어려운 곡예를 시키기도 하나, 귀를 뒤로 누는 말정도는 꾸준한 사랑과 먹이로서도 시간이 문제이지 온순한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말에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승마를 하였거나 말손질 등을 하지 못했던 사람은 처음으로 말을 접할 때 조심하여야 한다.

손으로 주는 흉당무를 거리낌없이 받아먹는 말은 이미 우호적인 증거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호-라~」하며 말에 접근, 말굴레를 씌우는 것이 좋다.

말 앞에서 겁먹은 걸음으로 우물쭈물하면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 긴 말코의 역할

말 얼굴이 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긴 얼굴의 아래 쪽에 두 개의 비공이 뚫려 있고 그 코끝에는 비익(鼻翼)이 있는데 그곳은 대단히 잘 발달된 신경이 있어서 마치 사람의 손과 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말이 먹이를 먹을 때 이 코끝과 윗입술을 아주 섬세하게 움직여서 먹이의 냄새를 맡아가며 먹는데, 이때 독초가 섞여 있던지, 평소에 못맡았던 냄새가 나면 이것을 잘 가려낸다.

코는 호흡기의 출입구로서 운동할 때 충분한 공기를 흡입하고 반대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코가 크고 잘 발달한 말일수록 운동능력 또한 우수한 것이 사실이다.

말의 호흡은 콧구멍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와 같이 입으로는 호흡을 할 수 없는 해부학적 구조를 갖추었다.

또 말의 호흡수는 콧구멍의 입구가 벌어지고 좁아지는 것으로 호흡수를 셀 수가 있다.

보통 한 번 호흡하는데 필요한 공기의 양은 5ℓ로 1분간에 소요되는 공기의 양은 약 40ℓ이다. 그러나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몇 십배의 공기가 출입하게 된다. 가장 빠른 습보를 시키면 콧구멍은 벌겋게 뒤집힌다.

### 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을 때

평상시에 갑자기 콧구멍이 커지고 거친 호흡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놀라거나 불안한 표정이다. 이때 눈의 표정도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숨이 거칠어질 때는 멀지 않아서 불안한 대상으로부터 도망가려하기 때문이다. 만

일 이때 승마하고 있으면 곧 탄 말이 급격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낙마할 위험이 크다.

이와 반대로 먹이를 요구하거나 친구나 연인 말을 부를 때는 아주 가벼운 콧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 발정난 암말의 음부를 냄새맡을 때 즐거움의 표정으로 코끝과 윗입술을 윗쪽으로 말아 올리는 표정을 짓는다. 이런 표정을 보는 사람들은 말이 웃는 줄 알고 있으나 단지 말의 즐거운 표정이 웃는 표정은 아니다.

일 운동이 끝나고 40분 이상이 지나도 비익을 벌리고 노력호흡(努力呼吸)을 하고 있으면 이 말은 과로이거나 말 있는 곳이 몹시 덥거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증거이다(정상적인 호흡수는 1분에 8~12회).

말의 호흡수를 셀 때는 비익의 벌렁거림이나 또는 콧구멍에 손을 가볍게 대고 세기도하나 보통 아랫배의 상하운동수로 센다.

### 다리로 알 수 있는 말의 마음

말이 앞다리로 바닥을 긁는 동작은 먹이를 재촉할 때와 배앓이와 같은 고통을 표시할 때 많이 볼 수 있다.

똑같은 바닥 긁는 동작도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가볍고 약한 동작으로 바닥을 긁으며 머리를 흔드나 산통같은 복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에서 피하기 위해서거나 그 고통을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서 강하게 바닥을 앞발굽으로 두들긴다.

또는 뒷다리로 아랫배나 바닥을 차는 동작은 거의 복통 등의 고통을 나타내는 표정이다. 건강한 말은 앞다리를 모아서 서있고 뒷다리는 어느 한쪽을 가볍게 굽끝으로 서서 교대로 두다리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에서 앞다리 하나가 앞으로 나와 있던가, 앞무릎을 굽혀서 발굽을 바닥에 가볍게 붙였을 때는 그 다리에 건염(腱炎)이 있던가 혹은 관절염, 염좌(捻挫) 등의 고장이 있을 때인 것이다. 또 뒷다리 한쪽만으로 휴식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 뒷다리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와같이 다리의 특수한 동작에 의해서 말은 여러가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말을 다루는 사람들이 재빨리 말이 나타내는 다리의 변화를 알아서 빨리 대처해야 한다.

운동중에 어느 다리가 아플 때, 담박 절름거림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말의 절름거림은 뚜렷하지 않은 절름발이일 때는 말의 전문가가 아닌면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것은 말의 파행진단(跛行診斷)이라고 부르고 전문영역에 속함으로 말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필히 알아두어야 한다. 보통 자신이 타고 있는 말이 절름거릴 때는 즉시 말에서 내린다는 에티켓을 가져서 절름걸음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빨리 판단하여 그것이 절름걸음일 때는 곧 말에서 내려야 한다.

#### 말은 꼬리로써도 감정을 나타낸다

꼬리의 움직임은 말이 좌우로 몸을 돌릴 때, 몸의 균형을 잡으며, 이외에도 여름철에는 곤충이 가까이 오면 긴꼬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쫓아 버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말은 꼬리가 붙은 위치에 따라서 말의 아름다움이 달라진다. 즉 엉덩이에서 조금 떨어져서 처져 있는 것이 보기도 좋고 반대로 엉덩이 깊숙히 박혀있는 꼬리는 승마인이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꼬리가 좌우 어느 한쪽으로 박혀있던가 꾸부러져 있는 것은 보기도 흉해 말 값이 쳐진다.

꼬리를 쳐들고 험험거리는 것은 친구말을 부르던지, 엄마말이 망아지를 부르는 상쾌한 표정이다. 반대로 꼬리를 낮게 내려뜨리고 짧게 흥흥하는 것은 공포나 고통을 표시하는 표정이고, 또 꼬리를 사타구니에 끼고 허리를 낮게하는 동작은 기가 약한 말에서 가끔 볼 수가 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표시로 본다. 이 행위는 대개 체격이 작고 병약한 말, 또는 겁이 많은 말에서 본다.

뛰어갈 때 꼬리를 흔들고 가는 말은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니 그리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변을 볼 때 꼬리를 올리고 하는 것은 어느 말에서나 같다. 변은 보통 1일 10수회 배설하나 흥분하면 몇번이고 배설한다.

건강한 말의 변은 황갈색의 골프공상의 작은 덩어리가 되어 배설되나, 땅에 떨어지면 그 형태가 부서질 정도의 굳기가 건강한 것이다. 푸른 풀을 많이 먹을 때는 황녹색이 되고 조금 부드럽다. 이때 냄새는 향기는 없어도 악취는 아니다.

혹 코로 맡을 수 있는 악취를 가졌거나 변에 점액이 붙어서 번쩍이던가 바삭바삭한 검은 변이면 장이 나빠졌다는 증거가 된다.

말의 체온은 항문내의 직장온도를 잰다. 꼬리를 들어올려서 와세린을 묻힌 체온기를 서서히 항문내에 삽입한다. 측정중에 꼬리를 올려서 배변하면 체온기를 떨어뜨려 파손할 때가 많기 때문에 끈을 체온기 상단에 매고 그 끝을 집게에 매어 꼬리 윗부분에 고정시키면 체온기의 파손을 막을 수가 있다.

꼬리가 잘 들리지 않는 말은 근육조직이 잘 발달한 증거이며, 힘없이 꼬리가 들리는 말은 무기력한 말에서 많이 본다.

#### 말의 자세로 보는 표정

말을 마굿간 안에 풀어두면 대개의 말은 머리를 광선이 많이 비치는 곳에 둔다. 만일 창이 있으면 말은 그곳에 고개를 내밀어서 밖을 본다 그러나 말이 피곤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종일 일광을 피해서 어두운 곳을 찾아서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다.

말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들은 자주 말의 배앓이(疝痛)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말은 원기가 없고 식욕도 없으며 앞다리로 바닥을 긁거나 땀을 내기도 하는데, 심할 때는 누워서 고개를 뒤로 꾸부러 옆구리(臍部)을 바라보는 동작을 자주한다.

배앓이가 더욱 심해지면 마굿간 안을 굴러다니든지 혹은 일어서거나 눕거나 하는 동작을 몇번이고 하며, 때에 따라서는 등을 지고 누워서 고통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 이런때 수의사는

이 말이 운동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 언제부터 먹이나 물을 먹지 않게 되었는가? 앞다리 굽기 동작을 처음으로 본 시각은 언제인가? 등을 세밀하게 질문해야 한다.

말의 배앓이는 대단히 괴로운 것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이 병으로 죽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의 자세나 그 표정에 주의해야 한다.

말의 체온은 38℃내외이나 어린 말은 이보다 조금 높으며, 사람의 체온보다 1℃정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혹 아무런 이유없이 체온이 39℃가 넘으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고 다시 체온이 40℃를 넘으면 병이 생겼구나 의심해야 한다.

가축질병의 첨단요법.....비특이성 면역촉진제 수입완제품

# 울트라콘 주사

## ULTRA-CORN inj.

STIMULANT OF NON-SPECIFIC DEFENCE MECHANISM IN THE BODY  
가축의 자체방어력을 높여줌으로써 화학요법제의 남용으로 인한 약해와 경비를 줄임시다.

### ULTRA-CORN의 면역학적 작용기전

- ※ 망상내피계의 식균작용 활성화
- ※ 항바이러스 효과 (인터페론 증가)
- ※ 항체생산촉진

### ULTRA-CORN의 임상적 응용

- ※ 바이러스성 감염증의 보조치료
- ※ 기관지폐염 및 설사증의 치료효과 (식욕회복 및 임상증세 완화)
- ※ 만성연조직감염증 (유방염, 관절염, 폐염 등)의 보조치료효과
- ※ 어미가축 및 새끼를 위한 처치.....
  - ◎ 신생가축 : 임신말기의 어미가축에 주사함으로써 새끼의 패혈증 및 설사병을 예방시킨다.
  - ◎ 후산정체 : ▲후산정체를 개선할 수 없으나 감염증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우유생산량을 증가시킨다.
- ※ 개디스탬바 및 파보바이러스병 보조치료
- ※ 백신접종시 면역효과 증진

# virbac

동물약품수입·판매원



## 조양축산상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릉동 670-11

☎ 972-3572